

광주 송정역 환승센터 착공 내년말로 연기

‘투자 선도지구’ 선정으로 개발계획 수립 늦춰져

내년 7월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착공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 대상지로 선정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이 늦춰진데다 최근 송정역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착공 시기가 수개월 지연돼 내년 연말까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광주시장은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이정현(국민·광산1)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의원은 “복합환승센터가 화려한 청사진만 보이고 또 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부지매입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시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현재 복합환승센터 부지매입과 관련해 코레일이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센터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말에는 착공해 2019년 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합환승센터의 총사업비는 2480억원으로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로 세워진다.

이곳에는 KTX, 도시철도, 버스 등 환승시설과 업무 상업 문화 등 지원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그동안 부지확보 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뎠으나 지난 6월 광주시와 코레일이 개발부지 매각에 합의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7월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광주송정역이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이 늦춰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 선정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놓여야 할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때문에 수개월 착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의 양 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송정역 주차장 문제도 부지매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코레일은 부지를 매각하면 송정역 부설 주차장이 없어지므로 향후 복합환승센터의 주차장을 송정역 부설주차장으로 양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입장과 해석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유상매각 및 유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센터의 주차장이 코레일 귀속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송정역 주차장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송정역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개발부지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부지매입을 하루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관문이 될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가 이르면 내년 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 전경. /김진수기자 jeans@

“어등산 관광단지 새 사업자 내년 공모”

시 “시민협의체 의견 접근...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

광주시가 11번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 사업자를 내년 상반기 중 공모한다.

광주시는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정현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늦어도 올해 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7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종결을 앞두고 ‘법원조정안’에 이의를 제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이다.

이 협의체는 광주경실련,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 5곳과 광주시, 주민, 시의회 등 11명이 참여했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주)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금액(229억원)으로 조정이 유력시됐지만, 시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막판 거부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조정에 반대했던 시민단체가 협의체의 핵심 구성원인 만큼 시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소송이 길어지면 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도 그만큼 멀어지고 10년 넘게 끌어왔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갈 우려가 크다.

특히 광주시가 시민단체, 의회 등 20여 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를 1년 넘게 운영해 민간개발 방식을 내놓고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 측은 2012년 조성된 골프장 개장 조건 등으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을 시에 기부했으나 이후 부당하다며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 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불발된 제기, 사업자 변경, 수익성 결여 등으로 골프장(27홀) 조성 외에는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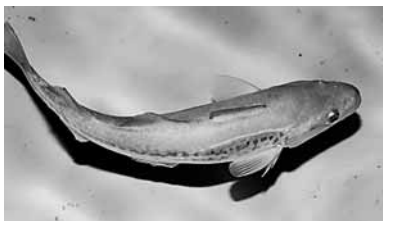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업이 분개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생선’ 명태가 돌아온다

국립수산과학원, 세계 첫 ‘완전 양식’ 성공

남획과 기후 변화 등으로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국내산 명태가 다시 밭상에 오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의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전양식은 수정란에서 부화시켜 기른 명태 새끼를 어미로 키워 다시 알을 생산하도록 하는 단계까지의 기술이다. 명태 인공양식 기술은 기존에 일본의 1세대 인공 종자 생산 기술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완전양식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태는 잡아 열린 것을 일컫는 ‘동태’에서부터 아가미를 빼내고 코를 제거 열린 ‘코다리’ 등 불리는 이름만 30여 가지인 물고기로, 알부터 내장까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별칭’ 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만큼 오랜 세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명태 새끼인 ‘노가리’ 남획 등으로 명태 어획량이

1~2t 수준까지 급감했고,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명태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얼린 명태가 대부분이다. 상심한 국내산 명태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어미 1마리로부터 수정란 53만 립을 확보해 1세대 인공 종자를 생산한 뒤 200여 마리를 선별해 산란이 가능한 어미(35cm 이상)로 키웠다.

이 중 7마리가 지난달 18일부터 산란에 성공, 이달 6일 기준으로 부화한 3만여 마리가 0.7cm까지 성장했다. 명태의 경우 크기가 0.7cm를 넘어서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완전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축산경제대표직 유지... 농협중앙회장 이사회 호선 없던 일로

내년 초 마무리되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농협법 개정안’이 우려적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직을 놔두기로 하고,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바꾸려던 농협중앙회장 선출 관련 조항도 제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100% 이관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역할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 조합지도·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정부가 5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농협 대표 중 유일하게 축산대표만 선거를 치러 줘도록 보장했던 ‘축산특례’ 조항이 사라져 축협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업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에 축산경제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특례 조항을 다시 포함해 축산경제 대표직을 놔두기로 했다. 대신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 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당초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290여 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빨라도 너무 빠른 한국 원전 건설

평균 56개월... 일본 이어 세계 두번째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발전소를 빨리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계의 원자로 2016년 판’ 보고서에 따르면 가동 중인 원전을 보유한 세계 31개 국가 중 최근 20년간(1996년 이후) 신규 완공된 원전이 있는 나라는 15개국이다.

이들 15개국은 이 기간 모두 83기의 원전을 지었는데 원전 건설에 소요된 평균 공사 기간은 190개월(15년 10개월)이었다. 다만 국가별로 편차가 컸다.

원전의 평균 공기가 가장 짧은 나라는 일본으로 평균 46개월 만에 원전 1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20년간 모두 8기의 원전을 건설했다.

이어 13기의 원전을 지은 한국의 평균 건설 기간은 56개월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평균적인

로 걸리는 시간의 3분의 1이면 원전 1기를 지은 셈이다. 그다음으로는 평균 공기 68개월인 중국(28기)이 3위를 차지했다. 한중일 3국이 최근 20년 새 원전을 지은 나라들 중 가장 빨리 원전을 건설한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77%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는 이 기간 4기를 건설했는데 평균 공기는 126개월로, 일본의 3배에 가까웠다.

미국에서는 1기를 지었는데 272개월이 걸렸다. 미국은 원전 1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원전별로 건설 기간을 보면 일본의 가시와지키 가리와 원전 6호기가 39개월 만에 완공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지은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한국의 월성 3호기가 49개월 만에 완공돼 두 번째로 공기가 짧았다. /연합뉴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수익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8억7천만원
- 서구 광천동 5층건물575평 대지223평 신세계사거리코너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2003년식) ▶ 감정가 41억6천만원
- 서구 벽진동 주택47평 대지176평 주변환경, 투자가치 1종일반주거지역 ▶ 감정가 2억4천만원 최저가 2억4천만원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서구 치평동 상가10층중 10층 건물146평 토지26평 롯데마트사거리, 전방중음 ▶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5억원
- 장성군 황명면 2중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중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담양군 대덕면 토지 1014평 전원주택지 및 농지포함 투자가치, 주변환경중음 ▶ 감정가 4천6백 최저가 4천6백
-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3층중 3층 건물40평 대지46평 주변환경중음 ▶ 감정가 2억5천만원 최저가 1억7천2백

★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8차선 대로점 상업지역 대지32평**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입점 ▶ 거래가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금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재단은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5년 10. 1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된 자에 한함
 - 영광군민 또는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 선발 인원 : 00명
-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ihmygg> 참고

-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 2016년 11월 1일(월) ~ 11월 21일(월) 17:00까지
 - 최종 확정 안내 : 2016년 12월 초순경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중식 수여식 : 2016. 12. 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의 날 (12월말 예정)
- IV. 신청 방법**
 - 우편·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 010-8667-6143
-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정으로, 재광영광군항우회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의 사무국으로 제출